

보도 일시	2022. 12. 20.(화) 조간 2022. 12. 19.(월) 11:00	배포 일시	2022. 12. 19.(월) 06:00	
담당 부서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	책임자	연구실장	오현주 (051-400-4105)
		담당	연구사	서광호 (051-400-4361)

우리나라 해수면높이 지난 33년동안 평균 9.9cm 높아져 - 지난 62년간 목포 조위관측소 해수면 15.4cm 상승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변재영)은 지난 33년(1989년~2021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이 평균 9.9cm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은 기후변화 핵심 지표 중 하나인 해수면 상승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으며, 매년 전년도까지의 조위관측소 자료를 수집하고 통일된 데이터처리 방식을 적용하여 해수면 상승률을 계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 21개 조위관측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은 지난 33년간 평균적으로 매년 3.01mm씩 높아졌다. 해역별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동해안(연 3.53mm)이 가장 높았고, 이어서 서해안(연 3.08mm), 남해안(연 2.55mm) 순으로 나타났다. 관측지점별로 보면 울릉도가 연 5.29mm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포항, 보령, 군산, 속초 순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관측기간이 가장 오래된 목포 조위관측소의 약 60년 간 해수면 높이를 분석한 결과 해수면은 연평균 2.49mm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62년 동안 15.4cm가 상승하였다.

목포 등을 포함한 21개 조위관측소의 33년 연평균 해수면 자료와 분석 정보를 내년 상반기에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바다누리 해양정보 서비스, www.khoa.go.kr/oceangrid)에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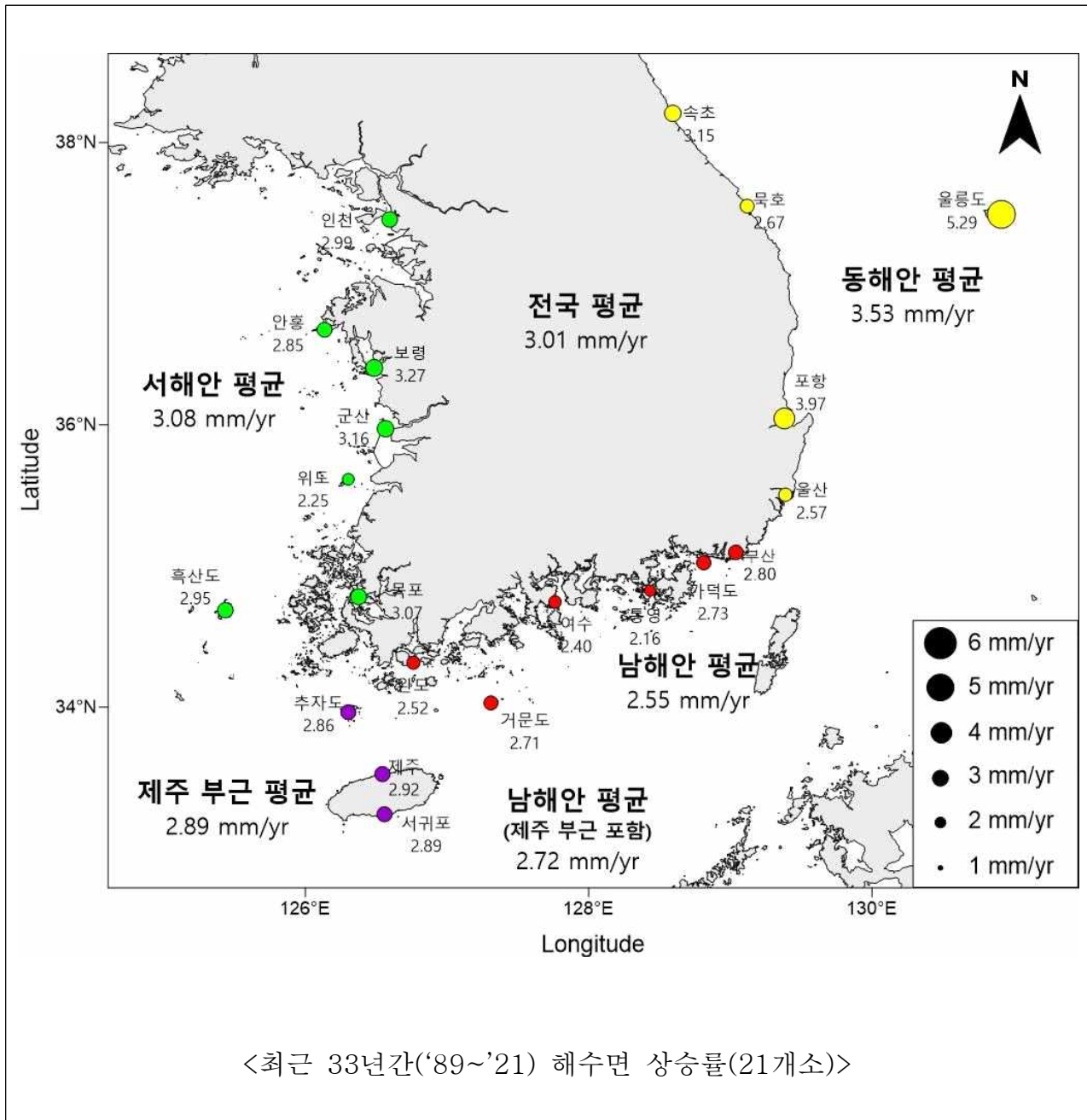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에서는 ‘정부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IPCC*)’6차 보고서의 신규 온실가스 경로(SSPs**)를 적용한 지역 해양기후 수치예측모델을 구축하였다. 현재, 우리 연안에 적합한 고해상도 해수면 상승 전망(~2100년)을 계산하고 있으며,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기후변화 관련 전 지구적 위험 평가 및 국제적 대책 마련을 위한 유엔 산하 국제 협의체

** SSPs(Shared Socioeconomic Pathways, 공통사회경제 경로): 미래 기후변화 대비 수준에 따라 인구, 경제, 토지이용, 에너지 사용 등의 미래 사회 경제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적용한 새로운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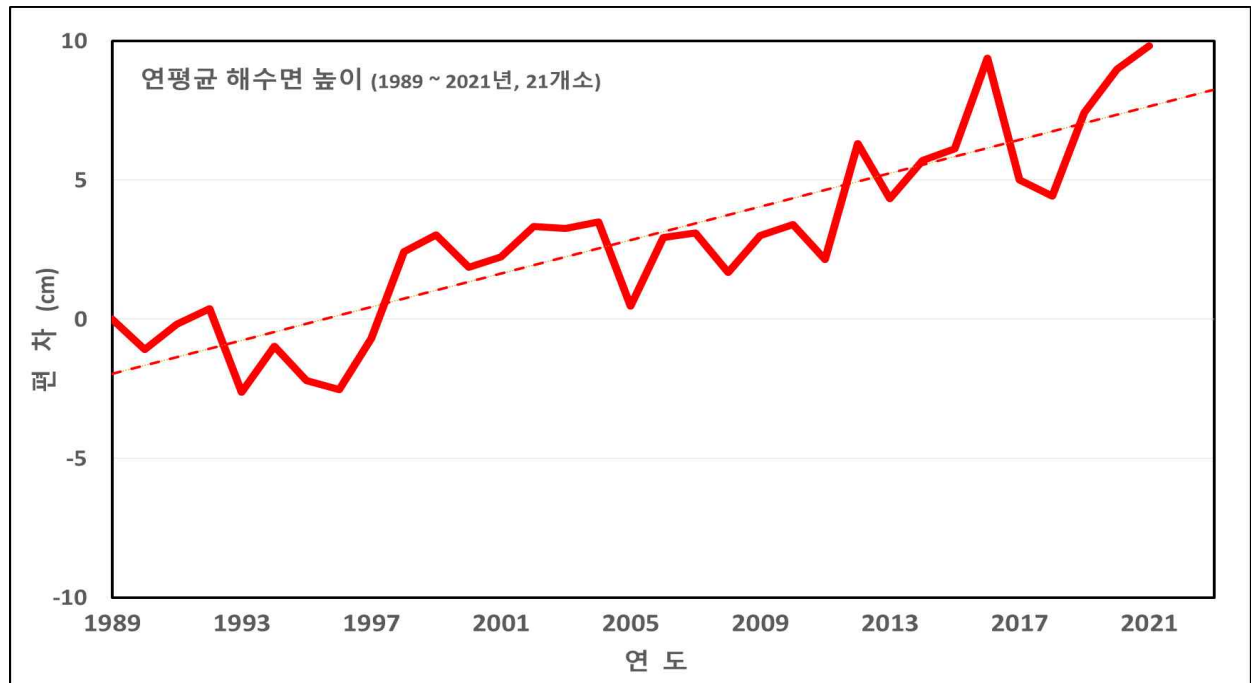
변재영 국립해양조사원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연안 관리에 필요한 해수면 상승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장기 전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며, “신규 온실가스 경로를 적용한 해수면 변동과 전망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붙임 1 최근 33년간 해수면 상승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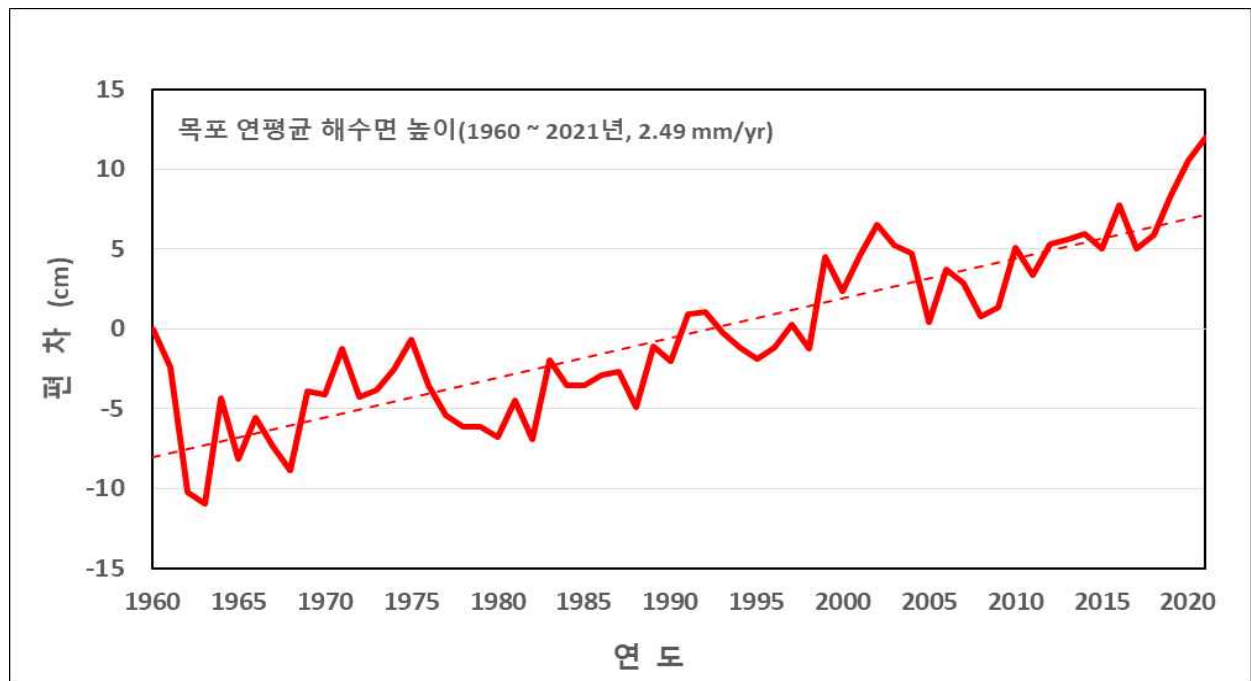


<최근 33년간('89~'21) 해수면 상승률(21개소)>

붙임 2 우리나라 장기 해수면 변동 및 목포 해수면 변동 그림



<최근 33년간('89~'21) 해수면 상승률 변동>



<목포 조위관측소('60~'21) 해수면 상승률 변동>